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⑱ 다산 정약용과 茶문화

茶를 사랑했던 조선 후기 대표 지식인

조선 후기 차를 활용한 부국론과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계책을 제안한 인물은 이덕리(1725~1797)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 특히 다산의 차에 대한 식견은 강진으로 유배된 이후라 생각한다. 물론 그가 강진으로 유배되기 이전부터 차를 알았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실제 어느 시기부터 차를 즐겼는지를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1778년 화순에 있을 때 지은 〈성주암에 올라(登聖住庵)〉에서 "차로는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 거듭 맑은 돌 샘물을 마시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차의 진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나이 19세 무렵 예천 정당의 동쪽에 위치한 반학정에서 지은 〈여름날 지정에서 절구 시를 짓다(夏日池亭絶句)〉에서 "어린 기생 차를 전해 주려고 대 사립문에 이르렀네(小妓傳茶到竹扉)"라고 하였다. 이어 1781년경 그가 지은 〈미천가(尾泉歌)〉에서는 찻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홍수 만나 산에까지 물이 차도 넘치지 않고(巨浸稽山而不活)
가뭄 들어 쇳덩이가 녹는데도 마르지 않네.(大旱流金而不竭)
일천 사람 길어가도 모자람이 없고(千人來汲而不歉)
오물이 온통 널렸어도 더럽지가 않네(濊惡繞匝而不染)
옥처럼 맑은 우물이 넘쳐 천만 년을 흐르는데(玉甃溢兮絡古流)
맑은 약수 떠 마시니 목구멍이 상쾌하다(瓊漿挹兮爽咽喉)
용단 차를 다려 고질병을 다스리니(爲試龍團治癖疾)
해맑기는 수정이요, 달기는 꿀 맛 같네.(瑩如水精甘如蜜)
육우가 만약 오신다면 어느 곳에서(물을) 찾을까(陸羽若來何處尋)
원교의 동쪽이요, 학령의 남쪽이라.(員嶠之東鶴嶺南)

앞에 인용한 시는 다산이 20세 즈음에 지은 것인데, 미천은 좋은 샘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길어갔던 정황을 드러낸다. 더구나 그가 마셔본 미천 샘물은 목을 상쾌하게 만드는 물이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다산 정약용 진영. 강진문화원 소장, 김호석 作.

강진 유배 직후 아암 스님 인연
다산, 차에 대한 식견 확장 계기
차 활용 국부론까지 저술하기도

그러므로 용단 같은 최상의 차를 이런 좋은 물로 끓여야만,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오래된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차의 효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국 좋은 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차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산은 이미 20세의 나이에 차의 근본을 이해했던 인물이라 하겠다.

그가 강진으로 유배된 이후 1805년 차에 밝은 아암 스님과의 만남은 차를 통해 척박한 유배지의 환경을 극복할 매개물을 얻었을 뿐 아니라 묵은 병을 치료하는 차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그가 차를 깊이 좋아한 계기는 연담 스님에게서 연유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연유를 살펴보면, 그의 부친이 화순 현감으로 부임한 것은 1777년경이다. 당시 연담 스님은 화순 동림사에서 수행하셨으니 다산의 부친과 교유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산이 이듬해인 1778년 화순 동림사에서 과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연담과 부친의 인연 때문이었다. 특히 연담은 차에 밝았던 대흥사 고승이기에 동림사에 공부하던 다산에게 차를 대접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연유에서 다산이 차의 오묘한 세계를 짐작하게 한 계기는 연담에서 시작된 것이라 본 것이다. 참으로 사람의 인연은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연담 스님과 다산의 인연은 아암 스님(1772~1811)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다산과 차의 만남은 우연은 아닌 듯하다. 강진 유배기에 차에 흠뻑 빠진 다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은 1805년 겨울 아암 스님에게 보낸 '차를 구하는 글(乞茗疏)'에서 "저는 요즘 차를 탐내어 약으로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한 대목이 그것이다. 차를 마시면 "막힌 것을 풀어주고 배 속에 생긴 덩어리를 제거하기" 하였기에 풍토병에 고생하던 그가 차에 의지하여 "마침내 이찬황의 고질적인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찬황은 당나라 사람 이덕유를 말한다. 차에 밝았던 그는 당대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되는 육우와 쌍벽을 이룬 인물로 평가된다. 이찬황처럼 차를 좋아하여 고질병이 생길 정도가 되었던 다산은 박학했던 학자답게 육우의 〈다경〉3편을 탐독해 육우가 말한 차의 핵심을 터득했다. 이어 차를 마신 후의 몸과 마음의 아름다운 변화 과정을 노래한 노동의 〈칠완다가〉을 읽어 차의 대체(大體)를 알아 버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차를 마시면, 사람의 정기(精氣)를 침식시켜 기운이 줄어든다는 기무경의 말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하니 그는 이미 강진 시절에 차의 이론이나 차의 정수를 관통했던 사실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다산이 차를 좋아하여 다벽(茶癖)을 얻은 것은 1805년경이라는 점에서 그가 제안한 차를 활용한 국부론은 우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강진 유배 시절 차의 원리와 이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그이기에 차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나라와 백성에게 두루 유익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의 차를 통한 국부론은 바로 〈상두지 둔전조(桑土誌屯田條)〉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첫째, 영호남 곳곳에 차 밭이 있으니 쌀 1말 정도를 낼 세금을 차 1근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차 10근으로 군포를 대신 받치게 해 준다면, 수 십 만근의 차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둘째 이렇게 모은 차를 배를 이용하여 중국 서북 지방 시장에 팔면, 10만근의 차를 가지고 2만근의 은을 얻어서 은전 60만 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결국 한 두 해 만에 45둔(屯)의 둔전(屯田)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런 수치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차의 값을 산출한 방법이다. 바로 월차(越茶, 중국차)의 가격은 차 1냥이 은 2전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실증적인 차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차 전매 제도를 연구한 〈각다고(榷茶考)〉에서도 드러나지만, 그의 제안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당시의 정치상황이 아쉬울 뿐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㊱

1.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이자 가장 많은 법문을 들은 제자이다.
② 수보리는 해공(解空) 제일이며,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이다.
③ 두타제일은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한 가섭 존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④ 데바닷다는 부처님 열반직후 거행된 결집에서 율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⑤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은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실천하여 밀행(密行)제일이라 한다.

해설 : 이번 회차에 다루는 문제들은 모두 부처님의 직계제자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각 문제의 보기를 통해 제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데바닷타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부처님에 대한 시기질투가 대단하였고, 불교교단의 통치권을 달라고 하는 등 주제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부처님께 직접 비판까지 들은 인물이다. 데바닷타는 결국 부처님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다가 지옥에 산 채로 떨어지게 된다. 그는 특히 부처님의 후원자였던 빔비사라왕과 위제희부인의 아들 아사세 태자를 꼬여내 여러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리불은 지혜가 매우 뛰어나서, 종종 부처님의 설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② 목건련은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로, 지옥고를 받는 어머니를 위해 우란분재를 올린 주인공이다.
③ 마하가섭은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 첫 번째 결집을 주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데 공을 세웠다.
④ 라훌라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나서 첫 번째 결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대부분을 암송해 내는 역할을 맡았다.
⑤ 아난다는 부처님의 양모였던 석가족 여인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청하여, 비구니승가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해설 : 라훌라에 대해서는 앞의 문제 ⑤의 내용을 참조.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나서 첫 번째 결집에서 부처님 가르침 대부분을 암송해내는 역할을 맡은 것은 아난다(아난)이었다. 그는 첫 번째 결집 외에도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하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은 제자로 다문제일이기도 하다.

3.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출가 이후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행과 선행에 철저하여서 밀행제일로 불리는 인물은 누구인가?
① 목건련 ② 사리불 ③ 아난다 ④ 라훌라 ⑤ 마하가섭

해설 : 라훌라이다. 그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태자이시던 시절 생긴 아들이다. 태자는 출가를 결심한 날 아들의 탄생을 알았음으로 이를 한탄하며 출가에 장애(물)가 생겼다고 하여 이름을 라훌라(장애)이라고 지으셨다고 한다. 라훌라는 아홉 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출가한데다가 부처님의 친아들임으로 교단 안에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전방지축으로 지내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아들이란 사실로 거들먹 거리지 않고 이를 숨기고 선행과 수행을 닦아 밀행제일로 불리게 되었다.

4.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천안제일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다.
②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과 생년월일이 같다.
③ 다문제일 아난다는 25년간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했다.
④ 신통제일 목련존자는 기원정사를 건립할 때 총감독했다.
⑤ 지계제일 우팔리는 출신계급이 가장 높은 바라문 출신이다.

해설 : 지계제일 우팔리는 계급이 낮은 이발사 출신이다. 바라문, 크샤트리야와 같이 출생신분으로 계급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카스트, 가진 직업에 따라 고귀함과 비천함을 따지는 것은 자티라 하여 이 둘이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우팔리의 자티가 이발사인 것은 알려져 있으나 그의 카스트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문에선 편의상 바라문과 비교한 듯하다. 부처님께서는 자티가 낮은 우팔리를 높은 계급들보다 먼저 출가시켰는데, 출가자들은 출가한 순서인 승납에 따라 위아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통해 출가자에게는 계급이 없음(선후배는 있음)을 보여주셨다.

5.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초의 비구스님은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였다.
② 부처님께 최초로 공양을 올린 사람은 빔비사라왕 이었다.
③ 최초로 재가신자가 된 사람은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④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은 것은 아난이었다.
⑤ 최초의 결집을 주도한 것은 마하가섭이었고, 이때 율장을 암송한 것은 우팔리였다.

해설 : 부처님께 최초로 공양을 올린 사람은 타풋사(제위)와 발리카(파리)라는 상인이다. 그들은 보리수 아래에서 49일 간 명상을 하시던 때 부처님을 뵈옵고 공양물을 올렸으며 부처님께서는 공양물을 받기에 적절한 방식을 생각하셨으며, 이때 부처님의 뜻을 알아챈 사천왕이 최초의 발우를 만들어 부처님께서 상인들의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상인들 또한 부처님의 위대함에 감명 받았으나 최초의 재가불자(재가신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때는 부처님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기 전임으로 교진여 등의 다섯 명이 최초의 비구가 되기 전이여서 인데, 왜냐하면 이 다섯 비구가 생겼을 때 승보가 탄생하며 이때 삼보라는 불자가 귀의하여야 할 대상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이 삼보가 생긴 이후 이에 귀의한 최초의 재가신자는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정답 : 1. ④ 2. ④ 3. ④ 4. ③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